

일본 교토 고쇼지 興聖寺 소장 사명대사 유묵 遺墨 특별 공개전

Special Exhibition
Calligraphic Works by Great Master Samyeong
in the Collection of Kōshōji Temple in Japan

국립중앙박물관 · BTN불교TV 공동기획
Jointly presented by
the National Museum of Korea and BTN

고쇼지 전경

전시를 열며

“산인山人 유정惟政은 선왕의 조정에서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고
나라를 구하러 나갔으니, 참으로 의승義僧이라고 할 만 하다.”

『광해군일기』

사명대사로 친숙한 사명四溟 유정惟政(1544-1610)은 조선 중기 불교계를 대표하는 선승
禪僧이자 임진왜란(1592-1598) 때 의승군義僧軍을 이끈 승병장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사명대사는 임진왜란 후 왕명을 받고 일본에 가서 강화 교섭과 포로 송환을 위해
활약했습니다. 이번에 특별 공개하는 ‘교토 고쇼지 소장 사명대사 유묵’은 국립중
앙박물관과 BTN불교TV의 공동기획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사명대사가 남긴 글에
는 조선과 일본의 평화를 이끌어 백성을 구하고자 한 마음과 구도자求道者라는 승려
의 본분을 잊지 않으려 한 사명대사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사명대사와 승려 엔니의 교류

사명대사는 임진왜란의 전후 처리와 외교 교섭을 위해 1604년 일본으로 건너 가,
그해 12월부터 1605년 3월까지 교토에 머물렀습니다. 엔니는 교토 출신의 승려로,
1603년 교토에 고쇼지를 창건하고 초대 주지가 되었습니다. 엔니는 선종의 가르침
에 대한 10개의 질문과 답변을 정리한 『자순불법록』을 교토 혼포지本法寺에 머물고
있던 사명대사에게 보여주고 자신의 이해가 맞는지 의견을 물었습니다. 사명대사
는 이 글을 보고 엔니를 인정하여 무염無染이라는 호와 허응虛應이라는 자를 지어 주
었고, 친필 편지와 시詩도 남겼습니다. 엔니는 사명대사와의 인연으로 일본 불교계
에서 명성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다행히 만 리 길을 가지 않고서도 이곳에 앉아서

경산徑山(대혜선사)의 후손인 대사에게 직접 가르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전생의 인연이 아니라면 어찌 이런 일을 기억할 수 있었겠습니까.

큰 자비를 내려서 지금 법을 전수해주신다면 그 덕이 얼마나 그지없겠습니까.”

『자순불법록』

2019. 10.15.Tue - 11.17.Sun

국립중앙박물관 상설전시실 1층
중근세관 조선1실

Medieval and Early Modern History,
Joseon Dynasty 1 Gallery

관람시간

월·화·목·금 10:00-18:00 수·토 10:00-21:00
일·공휴일 10:00-19:00 휴관일 11월 4일(월)

오시는 길

지하철 4호선, 경의중앙선 이촌역 2번 출구
버스 400번, 502번 국립중앙박물관 하차

입장료 무료



1 사명대사 유정의 초상화

Portrait of Great Master Samyeong

조선(19세기) | 비단에 채색 | 동국대학교박물관

사명대사 유정의 초상화이다. 승병장으로서의 기풍을 느낄 수 있다.

2 사명대사가 쓴 최치원의 시구

Verses from Choe Chi-won's Poem Written by Great Master Samyeong

사명 유정 | 일본(1605) | 종이에 먹 | 교토 고쇼지

사명대사가 친필로 쓴 시구詩句로, 신라 말 문장가로 이름난 최치원崔致遠(857-?)이 지은 시「윤주* 자화사 상방에 올라[登澗州慈和寺上房]」중 두 구절이다. 시 속의 자화사처럼 고쇼지가 탈속적이라는 뜻을 담아 이 시구를 남긴 듯하다.

* 윤주澗州: 지금의 중국 장쑤성[江蘇省]

畫角聲中朝暮浪 나팔 소리 들리고 아침저녁으로 물결 일렁이는데,
靑山影裏古今人 청산의 그림자 속을 지나간 이 예나 지금 몇이나 될까.

3 사명대사가 「벽란도」의 시운을 빌려 지은 시

Poem Written by Great Master Samyeong
by Matching the Rhymes of Yu Suk's "Byeongnando Port"

사명 유정 | 일본(1605) | 종이에 먹 | 교토 고쇼지

임진왜란부터 10여년간을 돌아본 사명대사의 감회를 표현한 시이다. 일본에서의 임무만 잘 마무리한 뒤에 속세의 일을 정리하고 선승禪僧의 본분으로 돌아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고려 말 문신 유숙柳淑(1324-1368)의 시 「벽란도碧瀾渡」를 차운하여 지은 시이다.

有約江湖晚 강호에서 만나기로 약속한 지 오래되지만
紅塵已十年 어지러운 세상에서 지낸 것이 벌써 10년이네.
白鷗如有意 갈매기는 그 뜻을 잊지 않은 듯
故故近樓前 기웃기웃 누각 앞으로 다가오는구나.



고쇼지 소장 유묵 촬영
사진작가 호리데 츠네히데[堀出恒夫]

4 사명대사가 대혜선사의 글씨를 보고 쓴 글

Great Master Samyeong's Writing
in Admiration for Calligraphy by Chan Master Dahui

사명 유정 | 일본(1605) | 종이에 먹 | 교토 고쇼지

사명대사가 교토 고쇼지에 소장된 중국 남송의 선종 승려 대혜 증고大慧宗杲(1089-1163)의 전서篆書 글씨를 보고 감상을 적은 글이다. 사명대사는 이 글에서 중생을 구제하라는 스승 서산대사가 남긴 뜻에 따라 일본에 왔음을 강조하여, 사행使行의 목적이 포로 송환에 있음을 분명히 밝히고 사행을 떠나기 전 입적入寂한 스승에 대한 절절한 추도의 마음을 드러냈다. 임제종의 법맥이 중국 선종의 제6조祖인 혜능으로부터 대혜를 거쳐 사명대사로 이어진다는 조선 불교계의 법통 인식을 보여준다.

5 사명대사가 승려 엔니에게 지어 준 도호

Monk Enni's Buddhist Pseudonym Bestowed
by Great Master Samyeong

사명 유정 | 일본(1605) | 종이에 먹 | 교토 고쇼지

사명대사는 고쇼지를 창건한 승려 엔니 呂耳了然(1559-1619)에게 '허응虛應'이라는 도호道號를 지어 주고 두 글자를 크게 써 주었다. 엔니를 사명대사에게 소개한 난젠지南禪寺 장로 센소 겐소(仙巢玄蘇(1537-1611))는 조선과 일본의 외교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쓰시마번對馬藩의 외교승이기도 했다. 엔니와 겐소는 같은 임제종 승려였기 때문에 엔니는 겐소의 소개로 자연스럽게 사명대사와 교류할 수 있었다.



6 사명대사가 승려 엔니에게 준 글과 시

Writing and Poem Written for Monk Enni by Great Master Samyeong

사명 유정 | 일본(1605) | 종이에 먹 | 교토 고쇼지

사명대사가 고쇼지를 창건한 승려 엔니 呂耳了然(1559-1619)에게 도호道號를 지어 주며 함께 보낸 글이다. 사명대사는 엔니의 자字를 허응虛應, 호號를 무염無染으로 짓고, 이는 관세음보살이 두루 중생의 소리를 듣고 살핀다는 뜻을 담은 것이므로 잘 새겨서 마음에 간직하라고 하였다. 또, 계속 불법에 정진하면서 중생 구제에도 힘을 것을 강조하는 시를 함께 적어 주었다. 수행 정진과 어지러운 세상에서 중생을 구제하는 속세의 임무가 모두 중요하다는 사명대사의 뜻이 담겨 있다.

言前活路莫遲留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활로에서 머뭇거려서는 안 되네.
直道行行到始休	곧바로 길을 가고 가다보면 비로소 그칠 곳에 이르리라.
鑑物冲虛無所住	만물을 비추어 보면 텅 비어서 머물 곳이 없고
回機寂照有攸由	기틀을 되돌려 고요히 살피면 나아갈 곳이 있네.
頂門具眼如天主	정수리에 눈을 갖추니 천주天主[대자재천대自在天]와 같고
肘後懸符似國候	팔에 부절符節을 매달았으니 제후와 비슷하네.
度世濟生遊幻海	세상을 건지고 중생을 구제하려 속세에 노닐면서
駕船無底任波頭	바닥없는 배를 타고 파도 위에 몸을 맡기네.

7 승려 엔니가 부처의 가르침에 대해 사명대사의 의견을 묻는 글

Monk Enni's Questions about the Buddha's Teachings
and Great Master Samyeong's Answers to His Questions

엔니 료젠 | 일본(1605) | 종이에 먹 | 교토 고쇼지

「자소불법록諸詢佛法錄」은 고쇼지를 창건한 엔니 료젠(呂耳了然(1559-1619))이 선종禪宗의 기본 개념과 임제종의 가르침에 대한 이해를 10개의 질문과 답변으로 정리한 글이다. 엔니는 자신이 이해한 내용이 맞는지 사명대사에게 이 글을 보이고 가르침을 받고자 했다. 그는 다행히 만 리 길을 가지 않고 이곳에 앉아서 자신이 속한 임제종의 법맥을 이은 사명대사에게 직접 가르침을 받게 되었다며 기쁨과 존경의 마음을 표현했다.

